

준이다. 이중 양돈사료는 556만톤으로 약 6~7%가량 늘었다. 올해는 이보다 약 2.5% 증가한 57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도 올해는 약 2.7%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돈과 비육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농가보다는 사료업체 자체의 변화가 컸던 한 해 였다. 양돈농가에서는 질병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아직 양돈농가 전체 MSY(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가 16.5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생산성이 낮다.

“올해 우리 양돈산업의 양적 성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수율이 잘 될 경우 돼지고기는 2,800원/kg(지육)까지 예상된다. 올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환율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 해는 우리 양돈농가에 있어서는 양돈업의 호기라 할 수 있겠다.”

농가의 잘못으로 이같이 사료에 독성물질이 섞이고 있다. 양돈농가의 사료관리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이에 따라 첫째, 두당 8,500원~11만5천원까지 차이가 큰 두당 사료비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협회에서 모니터링해 모델을 제시하고 표면화시키자. 둘째, 올해 수출을 4-5만톤 예상하고 있다. PSE육 등을 막기 위한 도축장 HACCP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80일령, 후기사료 급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유통구조상 농가에서 비용을 더 들여 실



강 세 원 이사

이같은 낮은 생산성은 농장들이 갖고 있는 질병문제로부터 기인하지만, 문제는 농가들이 질병사실의 은폐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의 눈길이나 자신의 농장의 위신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돈산업의 국가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금 양돈장에서 증식성 회장염, PRDC, PMWS 그리고 썬코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크다. 자돈 5~10%가 폐사되는 대규모 농가도 있다. 협회 차원에서 올해는 생산성을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사료의 마이코플라스톡신 등도 농가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료업체의 문제보다는 양돈

천하기가 힘들다. 돼지 품종별 실제 일령에 따른 PSE육 발생률 등을 조사하여 출하일령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료업체를 건전하게 끌고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 돼지 생산을 위한 각각의 배합사료 표준 배합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는 초기 이유자돈사, 질병에서는 만성질병이 관심을 끌었던 해

이재춘 최근 초기 이유자돈사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특별관리를 통해 그 효과가 좋다. 이를 포함하여 지난해는 양돈장 시설쪽에

김동성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2001년에는 수출중단, 구제역 발생 우려 등 양돈산업에 불안요소가 많았으나, 유럽 광우병 발생의 여파 등으로 돼지가격의 큰 폭락없이 무난히 지나간 한 해였다.

분회도 하반기 예상되었던 돈가 폭락을 막기 위해 TV광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해 평균 지육가격은 kg당 2,558원, 성돈 산지가격은 17만4천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질병부분에 있어 구제역 조기 청정화를

소비홍보 TV광고,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로 돈가 폭락을 막은 한 해

정찬길 지난해는 수출중단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9월 877만두, 12월 872만두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0월에는 성돈 가격이 14만원까지 크게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회 중심의 TV광고 등 소비홍보 활동으로 조기에 가격이 상승되었다. 비선호부위의 소비확대에 노력한 점



정 찬 길 교수

“ 전반적으로 2002년도 돼지고기 수요는 현 수준 또는 더욱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과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이 소비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규 소비, 기존 소비속진으로 돈가는 17만원-19만원대 사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개계가 잘 될 경우 6월경 20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출이 여의치 않다면 과잉생산된 물량으로 인해 하반기 폭락의 우려도 있다.”

이루었으며, 53년만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등 좋은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돼지 오제스키가 확산되어 근절의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돼지 사육두수는 9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다소 줄었지만 이는 계절적 영향일 뿐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다.

올해는 월드컵이 개최되어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발생 시 보상문제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주요 현안문제 등 편하게 말씀해 달라. 일단 지난 2001년 결산을 각 분야별로 말씀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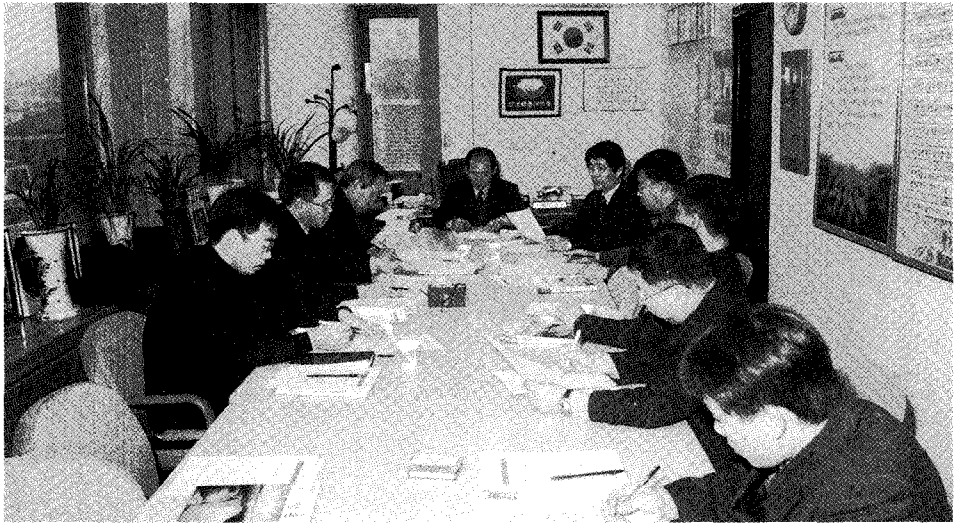
은 칭찬할 만 하다. 정부의 수매정책, 부분적 수출재개 또한 돈가안정에 한 몫을 했다. 양돈 농가로서는 안심스런 작년 후반기를 맞았었다. 올해 또한 생산비 수준 이상의 안정된 가격이 바램이나, 낙관할 수는 없다. 870만두 이상의 높은 사육두수를 수출재개, 새로운 수요 창출, 소비확대 등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양돈장 생산성 아직 PSY 16.5두 수준에 머물렀던 한 해

김형린 배합사료는 지난 97년 1,585만 톤까지 생산되었으나, 지금은 약 1,500만톤 수

2002년 돼지 사육두수 900만두 상회 예상

- 돈가는 17~19만원 예상 · 수출 안되면 하반기 폭락 우려
- 상반기는 '질병방역', 하반기는 '수출' 이 이슈



◆…본지는 2001년도 한국 양돈산업을 결산하고 2002년 양돈산업을 전망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본지 편집위원이 본 2002년 양돈산업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표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일 시 : 2002년 1월 10일(목) 15:00

○장 소 : 양돈협회 회의실

○좌담회 내용

- 2001년 양돈산업 각 분야별 결산
- 2002년 양돈산업 각 분야별 전망
(2002년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 문제점, 대책 등)

○진 행 : 김동성 상무

○참 석 자 : 강세원 이사(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김인철 연구관(축산기술연구소)
김형린 대표((주)맥스피드),
이재춘 원장(한별피그클리닉)
유재일 위원장(한국양돈컨설팅그룹)
정찬길 교수(건국대학교)
김태경 지점장(롯데홈 · 우유)

○정 리 : 조진현 대리

○사 진 : 김태옥 주임

더욱이 원유를 비롯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고정투자가 크고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양축가는 축산물이 초과 공급될 때에 이를 단기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축산물에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며, 이 비용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해 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특정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하고 운용하는 특징의 목적기금이 소위 자조금이다.

이러한 자조금이 일반적인 조세와 다른 것은 조세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납세를 의무화하는 비자율적인 비용인 반면에 자조금은 특정 산업의 구성원들이 그들 산업을 스스로 보호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과·부담하여 조성하는 자율적인 자금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단체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산업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공동의 자발·자율적(voluntary and autonomous)인 자금이다. 그러므로 자조금제도는 흔히 산업 민주화의 대표적인 하나의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자조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관련산업 구성원의 결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조금제도를 법제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토록하는 의무자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 system)와 법적인 규정이 없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임의자조금제도(voluntary check-off system)로 구분된다. 그런데 임의 납부제도하에서는 자칫 이해 당사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무임편승 문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우리 나라 낙농자조금의 경우도 1999년부터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하여 세 해에 걸쳐 80% 이상의 낙농가가 참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거출금액이 극히 소액일 뿐 아니라 그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프로그램을 수립하기에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무임편승자(free-rider)를 방지할 경우 기존의 참여자도 점차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많은 양축가들이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무자조금제도의 추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양돈**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제도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정된 소비촉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의 우리 나라 쌀 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축산물 시장에서도 쌀 시장과 똑같은 우를 재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무자조금제도의
조속한 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은 양축가인 생산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조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제인 것이다.

더불어 자조금사업이 특정 생산자단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오해도 절대로 불식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은 축종별 특정 생산자 단체가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자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과 사무실을 포함한 여타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생산자 단체의 사무실을 이용할 뿐이다. 축종별 각 생산자 단체들이 그들 회원들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필연적 사업임도 과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자조금사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특정 생산자단체의 이익과 연계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제도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정된 소비촉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의 우리 나라 쌀 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우리 나라 쌀 공급과잉의 주범은 과잉생산이 아니라 과소 소비이며, 그 과소 소비는 궁극적으로 소비촉진 정책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서야 쌀을 소비촉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산하는 농민들의 참여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쌀의 소비촉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이 된 셈이다.

축산물 시장에서도 쌀 시장과 똑같은 우를 재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무자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은 양축가인 생산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무한의 경쟁 경제체제 하에서는 양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축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유통되고 광고·홍보되어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